

신년사 **김창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급증하는 복지수요 충족 민관 협력체계 강화할것”

충북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2015년 올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화와 화합, 부드러움과 순함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이하여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한해 서로 돕는 사회복지의 참된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2015년은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난 70년의 역사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 30년을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로 이어지면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그 빛을 발해 도민행복시대를 열어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도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회복지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수레의 한 쪽 바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과 인력부족의 문제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에 고급인력인 퇴직 전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에 파견해줌으로써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하기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을 충북도내로 확산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여 공공복지예산 절감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나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천원 미만의 지정된 생필품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계기로 나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생활 속 나눔 실천으로 연결하고 충북형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미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유능한 퇴직전문가 적극파견
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공공복지 체감도 높일 계획

제도, 시설, 프로그램, 인력, 재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의 보다 더 큰 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발전과 21세기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체계화·내실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과 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년사 **이시중** 충청북도지사

“실버토피아 충북 만들어 어르신 노후 행복 실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찬 올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화합과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청양(靑羊)처럼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향해 신나게 달려 나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도정이 민선5기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 도민행복시대를 향해 힘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60만 도민과 이언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1만 3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가 본격 시작하는 올해는 전국 대비 충북경제 4%와 160만 도민행복시대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가는 첫 해가 됩니다.



북경제를 전국대비 4%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르신 복지한국인 실버토피아 충북을 구현해 나가는 등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 함께하는 충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과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통하여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각종 FTA 체결에 공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내방내 신명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160만 도민의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시 하여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올미년 올 한해는 우리 충북이 전국 대비 충북경제 4%대 진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의 비장한 각오처럼 160만 도민 모두가 사즉생충(四即生忠), 즉 4% 경제만이 충북을 살린다는 결연한 의지로 나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9988행복나눔미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치매예방 등 총력
장애인 자립홈 지원 늘리고
다문화가정 글로컬 학교 조성

그동안 우리 모두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한해입니다.
금년도 충북도정은 전국대비 3%의 충북경제와 2만 5천불의 도민소득을 2020년도에 각각 4%, 4만불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첫해가 되어야 합니다.
160만 도민행복시대를 여는 한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160만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충북인의 자존심을 걸고 충

신년사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상생-화합 의정 이끌어 도민의 뜻 충실히 수행”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에 찬 새해 새아침이 환히 밝았습니다.
올미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여명을 연 힘찬 기운으로 우리 충북에 새로운 신화 창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도민의 소중한 부름을 받고 태동한 저희 제10대 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를 기치로 힘찬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6개월여의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휘몰아친 파고(波濤)를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도의회는 보람찬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도가 진리라는 뜻 발판삼아
오로지 도민 행복 위해 노력
사회복지 분야 현안 해결에
의정역량 최대한 모아 뒷받침

앞으로는 저희 도의원 한 명 한 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10대 의회의 밑그림을 본 궤도로 올려놓아 도민께 약속드린 비전과 목표를 모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지난 경험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도민의 뜻을 오롯이 담은 공기(公器)로서 정도정행(正道正行)해 나가는 원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도의회에서는, 먼저, 서른 한 명의 도의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의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충북의 내일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지방의회의로의 진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생과 화합의 충북 시대를 160만 도민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의원 서른 한 명의 꿈과 이상은 160만 도민과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응비하는 것으로 충북의 주인은 오직 하나, 도민이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뒷길이나 지름길도 는 셋길로 가지 않고 본도(本道)와 정도(正道)를 향해 가라는 행불유경(行不由徑)의 뜻을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정철학으로 삼아,
어떠한 역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한마지로(汗馬之勞)하는 자세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를 반드시 도민 앞에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에서 도민으로 통하는 대의(大義)의 길을 곳곳이 걸어간 제10대 의회로 도의회 의정 역사에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드립니다.
올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암봉사단 일동

새해 복지부 예산 53조4725억원 확정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3조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2월 2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복지부 예산은 69개 사업에서 정부안 대비 1조5445억원이 증액되고, 8개 사업에서 88억원이 감액돼 1조5357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46조8995억원 대비 6조5730억원(14.0%)이 증가한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2014년 대비 3조7595억원(12.8%) 증가한 33조2300억원, 기금은 2조8135억원(16.1%) 늘어난 20조2425억원이다. 사업별 예산은 생계급여 2조6987억7800만원, 주거급여 1조1073억4100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 18억4800만원,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02억7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377억1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493억7300만원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50억원, 어린이집 지원 1776억3600만원, 노인일자리 운영 3442억4700만원, 경로당방문방비 298억원, 지역아동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50억600만원, 확대피해아동센터 설치 운영 58억9000만원 등이 다.

청주혜화학교 '혜화카페' 수익 기부

청주혜화학교 학생들이 교내 직업현장실습으로 혜화카페를 열고 수익금 중 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혜화카페는 고교 과정 이후 연계되는 직업훈련 과정의 하나로 직업현장실습으로 이뤄진 행사다. 교내에서 이뤄진 혜화카페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공과정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 비누, 피자, 쿠키, 초콜릿 등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판매

하는 실습으로 제조 및 판매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수혜자였던 장애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나기홍(전공과정 2년) 씨는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해 수익 일부를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12월 18일 청주혜화학교서 열린 혜화카페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 비누, 초콜릿 등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청주시보건소-청주대·충북보건과학대 협약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예방 뇌 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

청주시 4개구 보건소와 지역 대학이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상당 흥덕 서원 청원 등 4개 보건소는 8일 상당구보건소 회의실에서 9988 뇌 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증치매환자와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보건소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경증 치매환자와 7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뇌 인지 기능(기억력, 판단력 등)을 향상 유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주시 4개구 보건소와 지역 대학이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치매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기억력부터 시작하여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실행기능 등 인지기능의 장애와 성격변화, 행동증상, 정서증상이 나타나는 뇌 신경질환으로 기억 감퇴 등 인지기능 악화가 심해지면 악순환을 겪게 된다. 9988 뇌 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보건소 가족보건팀

으로 하면 되며 3월부터 1그룹당 10여명, 3그룹을 대상으로 10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보건소(043-201-3164), 흥덕구보건소(043-201-3362), 서원구보건소(043-201-3263), 청원구보건소(043-201-3462)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 '9988 행복지킴이' 전국 확대

충북도가 2014년부터 전국최초로 추진 중인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이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국 공통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시행하면서, 전국형 사업모델로 충북에서 전국최초 시행중인 행복지킴이

사업(노노케어 기반취직인 건강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활동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북도에서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의 전국형 총 3만5000개 일자리중 4739자리(전국 전체 13.5%), 61억원의 국비를 확보 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일자리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는 9988 행복지킴이를 기존

2,000명에서 4,739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은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열린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복지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우수사례 라고 평가 받은바 있는 등 우리사회 노인 4품(질병, 고독, 빈곤, 무위) 등 노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충청북도 대표 어르신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 3.0 우수사례 및 국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올 7월 시행 예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7개월만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2015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다중화 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수혜대상자가 되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나 수급자가 탈 수급을 위해 노력하리보다는 보호범위 내에서 안주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바뀌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중위소득 28%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40% 미만이면 의료급여를, 43% 미만이면 주거급여를, 50% 미만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다중화 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자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외을 선정 기준이 4인가구 기준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수급자 수는 현재 약 45천명에서 70천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복지 예산도 올해 1,402억원에서 내년에는 1,606억원으로 주거급여 133억원, 생계급여 67억원 등 총 204억원이 증액된다. 충북도는 기초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내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을 확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주시,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소아A형 간염 필수접종 등

청주시가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취합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연연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야외공연장 등 청주시가 조례로 제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던 소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변경(접종 연령 12개월 3개월)될 예정이다.

'희망 나눠주기' 프로젝트 추진

청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출중한 복지구현을 위해 2015 희망나눠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시는 먼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등을 주민에게 안내해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청주시 복지동상담당을 중추역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주민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이웃 돕기를 캠페인을 전개하여 스스로 도움을 신청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지역주민 연계형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방문형 복지돌보미단을

등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수급권자 발굴 지원 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수급자는 약 60%가 증가하고 복지 신청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해 관련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자립형 자활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이밖에 취약계층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방문형 복지돌보미단을

지속 운영,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복지돌보미단 운영** 청주시는 돌봄 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대해 시범 운영한 복지돌보미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위촉된 복지돌보미단 77명은 현재 청주지역자활센터와 청원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개인별 돌봄, 정부양곡 배송, 집수리 지원 등 가정방문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문 제(의심) 가구 발굴 거주 여부(자기출타 등) 확인 에 너 지 공금증단 여부 확인 위험요소 발생 확인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 등이다. 이들은 생활 현장에서 돌봄대상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시에 지원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창기 편집위원장 유재홍 편집고문 겸 주필 김춘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12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T. 1688-1377)
- (주) 밀리코리아, (주)오리온, 에스엔푸드, 롯데칠성(안성, 대전, 청주, 충주), 웅진식품(이천, 덕평), CJ(진천, 수원, 덕평, 일죽) 대상 양지센터, 네슬레, 오리온(청주, 청원), 자영 진천센터, 농수산물유통, 대전중앙물류센터
◆청주드림기초푸드뱅크 (T. 218-7991)
- 파리카게트, 농협하나로마트, 백상푸드, 서문우동, 하나종합물류, 단킨도넛, 민속떡집, 파리카게트, 쌍둥이떡, 햇살떡집, 현대아울렛, 청주유통, 새울, 민주유통, 고집불통맛집, 오븐스토리, 빵박스, 할머니소맛 반찬집, 동아오츠카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T. 267-1377)
-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초밥집,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청주주세균기초푸드뱅크 (T. 258-1377)
-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따베오 베이커리, 떡
- 이랑, 푸레쥬르 글린뉴타운, 푸레쥬르 글린정자점, 푸레쥬르 청주용정점, 레터블랑제리, 정수기획(후생사), (주)시아스, 카페레타, 파리카게트 분평점, 파리카게트 청주용암덕일점, 파리카게트 청주제일점, 한솔제2농장, 해신수산,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T. 266-1377)
- (주)떡과풍경, (주)성온에프에스, 가경대우 파리카게트, 경동수산, 도담, 푸레쥬르 청주비하계물점, 바누아투과자점, 바로구운빵, 백설유통, 비전상사, 좋은아침(성화점), 주식회사바금, 청풍명월 한우판매점, 파리카게트 복대점, 한국씨엔에프(주), 홀플러스의스프레스 청주성화2점
◆청주시푸드마켓 (T. 222-9171)
- 롯데제과(주) 청주영업소
◆충주시초푸드뱅크 (T. 855-3000)
-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컨츄주교현점, 떡
- 교인식품, 푸레쥬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유치즈점
- 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충주시푸드마켓 (T. 855-1377)
- 하이트진로(주) 충주영업소, 동보식품, 씨에스코리아, 한국씨엔에프 충주지사, 충주식품(오뚜기), 이종원면, 롯데제과, 타르트&베이커, 남양유유 충주대리점, (주)뱅크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주)천보내츄릴푸드, 푸레쥬르 주덕점
◆제천기초푸드뱅크 (T. 645-5004)
- 함영기, 청풍호청정한우, 제천오뚜기, 선명농수산, 삼육제천단양대리점, 문유통, 롯데제과제천, 동원농동, 다올 동산떡집, 365할인마트, (주)푸른촌, (주)진생, (주)오뚜기
◆제천시푸드마켓 (T. 647-1377)
- (주)두리메이킹, 롯데제과 제천, 삼권상회
◆청원기초푸드뱅크 (T. 218-1377)
-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카게트 오창중앙점
- ◆청원 새영 푸드뱅크 (T. 218-2605)
- 그린하우스과자점, 낙원떡방, 민속떡집, 철떡궁합, 파리카게트오창생용점, 파리카게트호수공원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 서울유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옥천기초푸드뱅크 (T. 733-2500)
- (주)리엔, 푸레쥬르 옥천메이팅점, 맥우, 새강빙가든, 파리카게트, 한올팜스
◆영동나눔기초푸드뱅크 (T. 744-4949)
- (주)벨엘유가공, 푸레쥬르
◆증평기초푸드뱅크 (T. 836-6040)
- 건국유유(진), 단비상사, 단킨도넛, 따베오(농협증평점), 오뚜기, 우원물류, 일우, 케이하우스
◆진천군기초푸드뱅크 (T. 533-4911)
- (주)면사랑, (주)체리부로, (주)폼푸드, 동원
- F&B, 푸레쥬르(진천성모병원점), 서울유유덕산대리점, (주)참채원, 파리카게트 진천덕산점, 프린스호텔
◆진천나눔과기초푸드뱅크 (T. 536-0129)
- (주)송리푸드, 이식식품, 화랑베이커리, 면사랑, 비르가방만두편방,
◆괴산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주)풀무원, 노정환, 노진경, 농업회사법인 괴산점공농산 유통회사, 따베오 농협괴산점, 푸레쥬르 충북괴산점, 이영구, 장국회, 전성원, 세종당약국, 주성마트, 주식회사 진미식품, 파리카게트 괴산점, 한국농약백화점, 흥현식
◆괴산군푸드마켓 (T. 834-1377)
- 풀무원, 임격정 청정김치, 중앙식품, 생협연대
◆괴산나눔과기초푸드뱅크 (T. 832-3197)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주)감식품, (주)비알코리아, (주)이가자연면, (주)풀무원, 민풍기, 반약국, 이 푸, 한스델리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T. 878-4312)
- 삼아씨에프,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음성 관성 푸드뱅크 (T. 070-4337-1270)
- 에스엔푸드, 이천 웅진식품, 롯데칠성 안성공장
◆단양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롯데칠성(오포),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 서울유유 단양보급소, 파리카게트
◆단양군 푸드마켓 (T. 423-1299)
- 롯데칠성(안성공장), 파리카게트, 광주파리크라상업체
◆단양나눔과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현진컨벤션 개관식... 러브 플러스 축제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 현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현진복지재단에서 현진컨벤션개관식 및 LOVEPLUS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소 속사제도 로의 전향을 위한 속사 증개축기능보강사업으로 현진컨벤션 개관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승훈청주시장, 오진섭보건복지국장, 김병국청주시의회위원장, 노영민국회의원, 허원욱흥덕구청장 등 내외귀빈들과 아동 및 입소어르신들의 후원자, 자원봉사자, 보호자, 지역주민, 직원가족들을 모시고 개관식이 진행됐다.

재단의 발전된 모습과 아동들이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행 행사를 통

하여 연말의 따뜻한 나눔과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귀감이 됐다.

현진컨벤션은 2013년 10월 09일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07월 22일 준공된 건물로 대지면적 1,388, 건축면적 277.2, 연면적 444.68 총공사비 5억원으로 국고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을 받고 일부는 기부담으로 준공되었다. 현재 1층은 아동들의 생활속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각종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권현숙 현진복지재단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진컨벤션을 완공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4년 12월 20일 현진컨벤션 개관식에 이승훈청주시장, 오진섭보건복지국장, 김병국청주시의회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 절단식을 진행했다.

보은군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 제공

보은군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중점발굴대상은 단전·단수·단

가스 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비정형 거주자 등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다.

특히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이·반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 SOS 지원단을 중심으로 오는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엔 발굴된 복지소외계층에게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공적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간서

비스 연계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방문상담, 후원물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위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42)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 사회적 약자 일자리 확충

충주시가 노인과 여성,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정을 투입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겨울철 서민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

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391명의 신청을 받아 최종 105명을 선발했으며, 60개 사업장에 투입해 오는 3월 20일까지 공공근로를 실시한다.

또한 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3월초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올 한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각 부서별, 사업장별로 필요인력을 모집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재정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충주시 경제과장은 시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연간 13억원을 투입 400여 명을 분기별로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간 100여명을 분기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점검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가동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가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가 올해부터 건축디자인과로 다시 조정했지만, 봉사는 계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상시 운영하며 시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고 있다.

전구 교체에서 상수도 문제까지 시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비롯한 배

관설비 등과 시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달려가 처리해 준다.

이 같은 광범위한 생활고충민원 처리로 남편보다 믿음직한 기동대란 별칭까지 얻었다.

읍 면 지역은 3월계부터 순회 운영할 계획이지만,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어 호출하면 수시 출동도 나간 다.

다만, 일반 가정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부르면 민원

해결에 필요한 재료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10만원까지 재료를 받지 않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와 전기 고장, 간단한 집수리 같은 생활불편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기동대(043-641-4801) 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동군, 경로당 도우미 배치

영동지역 경로당에 살림살이를 도맡는 가사도우미가 배치됐다.

영동군은 노인 복지시책으로 지난 5일부터 군내 경로당 23곳에 가

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와 환경정리 등도 해준다.

군은 해당 마을의 젊은 주민을 도우미로 고용했으며, 하루 3시간씩,

주간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 달 36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도우미 확보가 가능한 마을의 신청을 받아 경로당 이용 인원, 연령, 급식횟수 등을 심사해 대상지를 선정

했다.

박세복 군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으로 경로당의 단체 급식과 청소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단양군 원스톱 '복지정보 알림이' 운영

마을별 3명 이상 위촉
거주지 수혜자에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해 복지정보를 알려주는 주민복지실 직원들 모습.

단양군이 새해부터 복지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지정보 알림이를 본격 운영한다.

복지정보 알림이는 복지이장, 복지위원, 9988행복지킴이, 읍면협의체 위원, 마을별 복지 모니터링 등 복지사각 역할 부여자 중 리별 3명 이상을 위촉해 연중 운영한다.

이들은 읍 면 복지담당자로부터 각종 복지정보를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와 유선전화를 통해 전달 받으면 해당 거주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신청을 지원해준다.

군은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복지알림이 460명을 위촉해 정보제공 83회, 서비스연계 실적 453건, 교육실적 12회, 홍보실적 37회 등의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12월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 및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알림이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썼다.

군은 이 복지정보 알림이를 통해 복지이장, 9988 행복지킴이 등 유사활동 정비와 동일 활동과 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역할지연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 지원 방지 및 복지 자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해 비해 하루 2배 이상의 서비스 신청과 문의가 빚발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복지정보 알림이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정보 알림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모든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지역개발 투자 확대해야

음성군이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한달간 군 홈페이지와 각종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음성군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제안사업은 총 31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후 해당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을 거쳐, 의회의결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11건에 총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이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의 약 70%가 도로나 농로 포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해당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다.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는 남자 132명, 여자 56명, 무응답 26명으로 총 21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 예산편성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개발분야 24.3%(52명) 지역경제분야 19.2%(41명) 농 축 산 입업분야 19.2%(41명)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여야 할 분야로는 문화관광분야 27.1%(58명) 사회복지분야 20.6%(44명) 지역개발분야 17.3%(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책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투 자를 억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 42.1%(90명) 세 출 구조 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재원 확보 38.3%(82명) 등으로 나타났다.

증평군, 긴급복지 지원기준 낮춰

증평군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337콜센터(835-3337)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 복지사각 해소에 나섰다.

긴급복지 337콜센터(835-3337)란 복지이장과 전문상담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 경제적 도움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연료,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질병, 사망,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가정구성원 등이며,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5년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한다.

또 실직이나 휴 폐업으로 인해 긴급 지원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에만 인정이 됐으나 이 기

준도 12개월이내로 완화했다.

고도소를 출소한 경우 종전에는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경우에만 지원되던 기준도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 1-3급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어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337콜센터의 운영으로 189가구의 위기가정에 8천7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으며,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2천 670만원을 지원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업무협약 생명보험사

1. 사회복지법인 기부 프로세스 컨설팅

아름다운 사후기부 문화 정착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지속 발전 가능성 컨설팅

2. 알아야 면장하지!!

“지피지기 백전불태” – 내 보장 알아보기
“Bravo My Life!!” – 꼭 필요한 재무설계

3. 보험소비를 통한 자기 명의 기부

필요한 보장! 연금! 확인을 통한 보험 소비시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내 이름으로 기부(기관지정 가능)

사회복지협의회 담당FC 서경희
(문의: 010-9566-4575)

충북 현대자동차, 사랑신고 '쌍쌍'

봉사단체 '세잎클로버' 500만원 전달 등 따뜻한 온정나눔

네 잎의 행운 보다는 세 잎의 행복을 전달해 주는 현대자동차의 봉사단체 '세잎클로버'가 1월 13일(화) 충북지역본부 세잎클로버 봉사단체가 올해도 보내 곳곳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달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다.

12월 17일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안병주)는 동 조 합(지회장 이상진)은 사단법인 징검다리를 방문해 지역사회 공헌기금 500만원과 충북지역 임직원 모금액 150만원을 함께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또 같은 날 현대자동차 충북지역 본부는 따뜻한 연탄이 부족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공헌기금 5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충북연탄은행에 함께 기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2일에는 청주시청에서 저소득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프트카 시승 5 행사를 실시했으며, 행사에서는 대상자인 황도(49)씨에게 포터II슈퍼캡 다용도탑차와 창업자금을 포함해 모두 25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전달된 차량은 차량이동식 먹거리사업을 위한 푸드트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세잎클로버 팀은 회사가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5년 결성돼 청천면 운교

리 마을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각각 결연을 맺고 해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배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날 한가위 나눔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청천면 운교리마을에서 실시하는 대중제 행사를 후원하고 내년 배추농사에 필요한 농업용비닐(200만원 상당)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청천면 운교마을에서 재배된 점일 배추를 구입해 결연을 맺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게 전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행사도 함께 실시하는 등 바쁜 일사일손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년소녀 가장과 결손가정 학생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현대자동차 충북지역본부의 드림투게더 활동을 2012년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내 학생 16명에 대해 지역본부 내 지정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학생당 매월 10만원 이상 필요한 물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드림투게더 활동은 선정된 학



현대자동차 충북지역본부 노동조합이 사단법인 징검다리를 방문해 지역사회 공헌기금 500만원과 충북지역 임직원 모금액 150만원을 함께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세상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돼 선정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산공장견학과 이순신장군 공묘와 온양 민속박물관을 돌아보는 역사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13일 드림투게더 멘토 멘티를 초청해 메가폴리

스 아트홀에서 공연중인 사춘기 메들리 연극을 관람하고 퓨전음식을 제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Dream Tour (드림투어) 행사를 실시했다. 현대자동차 충북지역본부는 이밖에도 12월 24일 파란썬다,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해 결연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케익전달, 도서 학습도구 전달 등 학습환경 제공에 나섰다.

IBK 중소기업은행 "참 좋은 사랑의 실천"

승덕재활원 방문 후원금 전달

중소기업연수원은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재양성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업이 정신험양 및 실무응용 능력 향상, 현장실무중심 연수강좌와 쾌적한 연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류승인 부지점장은 중소기업연수원은 지역사회에 많은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경기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이용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연수원과의 인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IBK 중소기업 연수원 류승인 부지점장은 1월5일 승덕재활원(원장:박영수)을 방문하여 후원금 금일백만원을 후원했다.

다. 승덕재활원 원장은 이용인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노력

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사랑의 실천을 아끼지 않는 중소기업연수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서원대 학생들, 어르신들에 따뜻한 공연 선물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서 선보여

서원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청주시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무료 이미용서비스, 태권도 시범, 풍물놀이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미용학과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는 등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실력을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뽐내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재능봉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



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줌으로써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희노애락, 생활지도교사의 아픔을 노래하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연극세미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해 12월 23일 충북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연극 세미나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작지원으로 충북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극세미나는 2012년 Beer 세미나에 이은 실험 세미나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 현재의 모습을 연극으로 보여주며, 생

활시설 복지 실태를 공유하며 나아가 갈 방향을 논의해보는 시간이었다.

연극 세미나의 주제와 내용은 12월에 실시된 충북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토론회에서 발췌된 내용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한 후 감독, 각본등 영역별 담당자를 두어 진행했다. 또한 연극을 통해 장애인 시설 생활 재활교사의 고충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례를 표현했으며, 시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12월 23일 충북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들이 라디오 사연극을 주제로 연극을 펼치고 있다.

종차 청소년멘토링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풍물놀이와 태권도를 베트남에 알리고 우정의 선물상자를 전달한 뒤 현지 초등학교 2곳의 답장 쓰기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증평공고 어둡음 교장은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원들에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해 삶의 지표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러한 활동은 바람직한 청소년상으로 청소년의 본보기가 된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증평공고 RCY는 지난해 5명의 단원으로 창단해 현재 38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증평공고 RCY 베트남 팜닌성 봉사

풍물놀이태권도 지도 등

충북 증평공업고등학교 RCY(청소년적십자단) 단원 3명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팜닌성 일

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증평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박지민, 반승현, 문수영 학생 등 3명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2014 회담의 합성, 세계로 퍼져라 회담



'한국교통대학교'의 따뜻한 사랑 전달식

충주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월 6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김영호)는 충주시노인복지관(지회장 홍병호, 관장 김웅)을 방문하여 교

직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435만 5000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매년 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들의 모금을 통한 기금으로 벌써 5년째 꾸준히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 중이며 이번 후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쓰여 질 계획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번 모금 전달식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직원 일동은 어르신 공경 실천과 독거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오히려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노인복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웅 관장은 매년 후원금을 주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위해 후원금을 쓰겠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독거 어르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재능나눔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 및 개인
- 베이비부머봉사단 : 55년~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

봉사활동 : 연중 (월 2회 이상 권장)

분야별 봉사활동

구분	내용
상담·정보봉사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기술·기능봉사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교육·학습봉사	나눔·경제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지도 등 학습지도
운영·지원봉사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 보조봉사 등
노력·행정봉사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봉사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문화·예술봉사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및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통·환경봉사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등

봉사혜택

- 재료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으로 로그인 후, My VMS에서 언제, 어디서나 봉사활동 실적 확인 및 확인서 출력 가능
- 봉사단 위촉장 수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의의 지역사회봉사단 위촉장 수여
- 우수봉사단 표창: 우수 봉사단체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 문화·예술공연 지원: 우수 봉사단체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지원
-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지원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박희진 코디네이터 ☎ 043) 234-0840

2014 법무보호전진대회 개최

충북 정정순 행정부지사 등 참여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등 열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해 12월 23일(화) 2014년, 법무보호전진대회를 청주시립도서관 대강당(소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개최했다. 법무보호전진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에 중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호위원 격려 및 자원봉사자 역량 결집,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충북 정정순 행정부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 관련 충북 지역 자치단체장, 청주시립 남재호 부장검사 등 법무유관기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위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었다. 뿐만 아니라 후원연합회에서는 3,000만 원을, 운영위원회에서는 1,500만 원을,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

주지역연합회에서는 200만 원을, 흥덕위원회 이민성회장은 쌀 1000KG을 법무보호사업지원금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출소자를 위한 올바른 사회복귀와 자립에 쓰여질 예정이다.



희망드림 기프트카 '달려요'

충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현대자동차, 자동차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 본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12월 12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저소득가

이 날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하여 박석란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안병주 현대자동차그룹 충북지역본부장, 안철순 현대자동차그룹 청주북부지점장이 참석하여 전달식을 가졌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황씨(49세, 청주시 상당구)는 포터2 차량과 창업자금(총 2,568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차량을 전달받는 황씨는 참 맛있는 우동집 엄팔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며, 홀로 키우고 있는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성공하겠다는 큰 결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희망드림 기프트카 사업은 창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이웃을 대상으로 선정, 차량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 시즌5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2014년 지역사회특강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장 반영애)는 12월 9일(화) 오창스포츠펠드에서 노인문제와 행복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2014년 지역사회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인 이수한 신부의 강의로 9988행복지킴이 9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9988행복지킴이 활동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수한 신부는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거나 만성 질환, 고독, 우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이야기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9988행복지킴이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고 독거노인의 돌봄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충북에서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012년 592명, 2013년 546명으로 매년 500명 선을 유지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충청북도 가 올해 처음 시행한 노인복지분야 신규시책인 9988행복지킴이사업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9988행복지킴이가 마을의 사각지대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락 등을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행복지킴이에게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지원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꿈꾸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연주

장애아동 음악회 합창 등 공연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화) 봄날 웨딩홀에서 장애아동 음악회, 꿈꾸는 천사들의 위대한 도전 이 진행됐다. 꿈꾸는 천사들의 위대한 도전

2013년부터 시작해 하트하트재단, 공동모금회에서 2년동안 지원받아 주2회씩 꾸준한 연습해 왔다. 이번 공연을 통해 장애아동에게는 음악을 통한 즐거움과 친구와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우크렐레 연주자라는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공연에 참여한 한 아동은 오늘 천사들의 연주회를 보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꿈틀꿈틀 놀이터 발표회

아동 합창 동시낭독 등 진행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화) 용암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14년 지역연계형 교육복지 협력사업(BMW) 꿈틀꿈틀 놀이터 발표회를 진행했다.

책(Book)과 노래(Music)가 만나 그 음악(Worldvision)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BMW(Book & Music in Worldvision)가 시작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지역연계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BMW(Book & Music in Worldvision)는 아동이 직접 책을 읽

고 감상이나 느낌을 글(동시)로 표현하여 곡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지역 내 초등학교 20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책을 읽고, 동시를 쓰고, 이모신 동시작가도 만나고, 윤학준 작곡가도 만나고, 음악공부도 하고, 서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대학생들의 작곡 도움을 받아 곡도 완성했다. 아동이 만든 동시와 곡, 도움주신 분들의 응원 글을 엮어 꿈틀꿈틀 놀이터 동시동요집을 발간하였고, MR을 제작하고 아동이 직접 부른 음악을 모아 음반도 수록했다. 발표회는 아동들의 독창, 중창, 합창으로 구성되어 아동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됐다. 아동



들이 직접 지은 동시도 낭독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했다. 참여한 분들께 꿈틀꿈틀 놀이터 동시동요집을 선물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작곡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한 오현근 자원봉사자(서원대학교 음

악교육학과)는 가사가 독특한 아동들의 곡을 들으며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BMW 활동에 참여한 김송현(8) 아동은 제 노래가 세상에 나오니 TV에 나오는 사람 같았고, 사람들이 많이 듣고 불러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주내덕복지관-빅드림봉사단

깜짝 산타 원정대 위문행사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각연스)는 지난 12월 17일, 신한생명보험 빅드림(Big Dream)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깜짝 산타 원정대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주지역 신한생명 3개지점(서청주, 상당, 청원지점) 임직원 17명이 참여하여, 저소득계층 독거어르신 37가정을 방문해 일일 가족이 되어 위로하고 의류와 식품, 생필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편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산타 이벤트 동시 진행되어 당일 이용어르신 전원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쿠키선물을 나누어 드렸다.

이날 신한생명 자원봉사자 리더로 참여한 이정훈 서청주지점장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이번 겨울이 독거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해가 될까 걱정된다. 홀로 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구강건강관리 나서요”

청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치위생사협회충청북도회 협약

청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센터장:반영연)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충청북도회(회장:홍정의)가 12월 5일 센터관계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재가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치과위생사협회는 청주시 재가노인을 위해 칫솔(500개)과 틀니보관함(100세트), 틀니세정제(100박스) 등을 후원하고 앞으로도 장기요양대상자 및 독거노인들의 잇솔질 교육, 틀니 사용법과 세척 등을 교육하고 치과위생사

와 함께하는 칫솔 바꾸는 날 행사를 통하여 몸이 불편한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치아관리 해줌으로써 지역 내 대상자들의 치아건강과 건강한 치아유지관리 방법을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노인계층은 구강건강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구강관리가 매우 어려워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내 재가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반)

아동·장애인, 중요 학교폭력, 중요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청지방경찰청내에 마련된 성폭력 전문수사팀 피해자 조사 및 의료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반(충북원스톱지원센터)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는 단속반으로 구성·운영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 여자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사례 접수시 상담 및 영장진술녹화(심리전문가 참여)를 통한 피해자 조사
- 청주의료원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지초 및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피해자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 키트) 실시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법률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합니다.

이젠 아동·장애인 전문수사팀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알려주세요!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신고 전화

주간 : 043)240-2647(성폭력 특별수사대)
학교폭력 : 117

야간 : 043)272-7117(원스톱지원센터)
H·P : 010-4778-3155

시론

청양의 기운처럼 따뜻한 세상을 기약하며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본지 편집위원장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물이켜 보면 지난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유일병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던 한 해였다. 모든 사건이 안타까움을 자아 내지만, 특히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은 사회복지제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 모녀는 부양의 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마련됐다. 그렇지만 제도의 정비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전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회복지전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100조원의 시대라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모두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가족들, 아프고 외로운 어르신들, 또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골고루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기에, 충북 도내의 많은 사회복지인들의 기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새해 충청북도에

서도 적지 않은 분야의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이 바뀐다. 한부모가족(소득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자녀의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소아A형 감염 예방접종이 추가돼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가위탁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전국적인 복지 모범사례로 어르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9988 행복나눔미·행복우미' 사업도 확

대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강화되는 이런 일련의 복지정책에 많은 도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청양(淸羊)의 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온순한 성격의 동물인 양의 기운에 진취적이고 신성한 것을 상징하는 청색이 융합되어 긍정적 기운이 강하게 해라고 한다. 이렇게 멋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청양의 기운처럼 밝고 따뜻한 뉴스가 가득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신문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보건 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규제가 본격 시행

□ 의료기사 등(8개 직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3일부터 면허신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함
- 의료기사 등(8개 직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약경사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 -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4. 청소년 잠복결핵검역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검역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암·심장·뇌혈관·회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20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가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감소
-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

7. 어르신 임플란트, 불나 보형급여 대상 확대

□ 2015.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
□ 회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

8. '회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 회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
-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정 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
-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할 계획

12. 임신·출산·육아 비우려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교유

막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민편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움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우려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우려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5년부터 확대할 계획
-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비우려를 2015년부터 소득 65% 이하(14년 동월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

1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기능

□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

15.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

<저출산·고령화 분야>

18. 국내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
-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

19. 단기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사서비스를 제공
-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 가구 2,307천원)인 자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함
- 20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민·관협력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 사업규모를 2014년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서 20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가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 특히 20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 이동번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3.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평가주기 변경)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4.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움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
25.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

이집 특종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
- 영아기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15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2014년 월 150만원에서 2015년 월 174만원으로 확대 지원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급보험료) 지원

□ '15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급보험료*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을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3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8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8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5.4월부터는 최대 20만 3,600원(월정)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할 계획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6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지 진단

복지예산 편성과정에 복지는 없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청분을 유지하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시군에 전달하였다. 예를 들면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충북도는 50%의 매칭지원을 하던 예산을 2015년에는 10%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기존 50%부담에서 90%의 부담을 지게 되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충북도의 이러한 입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지원했기에 축소할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3~10%를 주는 것에 감사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 지방정부는 사전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양 지방정부간의 예산싸움의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민간복지 현장이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이미 법에서 예견되고 있는 현상이었고 보조율을 축소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반토막난 상황을 서로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

- 문제의 원인과 배경

복지현장의 운영비가 절반만 세워졌던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에 끝나는 분권교부세로 인한 기현상이다. 분권교부세는 참여정부때 분권의 명분으로 일부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주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제도이다. 이 제도가 2014년 끝나고 올해 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충북도와 시군 지방정부간의 예산싸움으로 확인되었다.

충북도는 그 동안 시군 분권교부세에 대해 별도의 매칭예산을 부여하지 않아오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5~50%까지 매칭예산을 붙여 주었다. 시군 분권예산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고 기존 시군 분권예산이 보통교부세로 바뀌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칭예산을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연차적적 입장에서 기존의 매

이상과 같이 충북도의 대응점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는 향후 입장의 변화가 없는한 언제든 기초지방정부와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

-청주시 대응의 문제점

청주시의 대응의 문제점들도 살펴 보겠다. 첫째, 충북도에게도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제도적 변화는 예고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기에 청주시가 재원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재원편성의 큰 변수를 사전에 인지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수수 방관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도 내 시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현장의 리스크를 해소 하기 위해 추가예산편성을 추진함으로써 복지현장의 혼선을 해소시켜 주었다. 복지예산편성에 소극성, 문제해결 능력 결여적인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 지적 되는 부분이다. 셋째, 취약계층을 불모로한 무책임한 복지행정의 문제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 운영비 감소로 장애인근로자 400여명 중 2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청주시는 복지계를 불모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복지현장과 대화가 전혀 없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충북도와 청주시의 기싸움의 희생양은 복지현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가 보다. 배려적이고 합리적 행정을 생각했다면 적게는 올 한해 동안 충분히 예산 편성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아니 했어야 했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군과 상의한 시기는 9월 이었다.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후 일방적으로 충북도는 시군에 조정된 매칭보조율을 내려 보냈다. 상급기관의 권위적인 행정이 다. 청주시도 역시 예견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상황은 객관적으로 민간 복지현장을 불모로 예산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적, 행정력을 발휘 해야 했다.

충북도 입장과 청주시 입장을 각각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다.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만 의미

가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존재 하는 이유는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양 지방정부간의 예산 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존재는 민간복지현장이고 사회안전망의 주 대상인 취약계층이다. 진정 이 문제를 취약계층을 중심에 놓고 해결 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책임은 권한을 최대한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활용 되어질 때 그 책임이 완성됨에도 서로간의 눈치 보기와 때 늦은 소극적인 건의(청주시) 수준이었다. 도민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조직이거주의가 아닌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합리적 행정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시 당하는 복지현장

이런 사실적 상황에서 필자가 분개하는 이유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이 상황의 피해자인 복지현장과는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사실을 입수한 복지현장이 도에게 오히려 대화를 요구했고 대답은 격정말만 말만하고 결국 이런 상황을 촉발시켰다. 청주시 역시 충북도랑 예산싸움이라고만 하고 사전 양해나 대화가 없었다. 도저히 대화를 하지 않기에 민간복지현장은 우리들의 걱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토로하였고 그제사 청주시는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얼마나 복지현장 알기를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복지 운동을 하는 필자는 생경하고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다.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들을 무시 해도 되는 것인가. 말만 좋은 일만 다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부족할 판에 복지를 불모로 예산싸움을 하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원망스러움을 넘어 울화가 치민다.

-분노하지 않는 복지현장

비슷한 상황이 인천에서도 발생 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복지현장 실무자들 1200여명은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총궐기대회를 지

난해 개최하였다. 1인 시위도 시설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천 시장은 원사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반면 우리지역은 어찌 했는가. 내 기관, 시설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지했을까.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복지는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사회행동이다. 이럴 때 복지계가 더욱 분노하고 항의 하였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벽을 보고라도 분노하라 는 프랑스 저항 운동가의 말처럼 우린 진정 사회정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가.

-사회정의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

2010년 보편적복지에 대한 사회적 혼풍이 불었다. 이제 복지가 대세인가 보다라는 낙관적인 상황이였다. 다시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 했지만 복지는 슬그머니 오고간데 없다. 곳곳에서 이 현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이어졌다. 결론은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운동에 복지계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복지를 직접적 업무로 삼고 복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갈망하는데 사회변화의 흐름에서는 방관적 수준이었다.

이번 복지예산 감소에 대한 우리지역 복지계는 다시 방관적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지방정부를 탓 하기 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자학적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일례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 되고 빈곤층은 증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기 바쁘다. 지방정부는 그런 흐름에서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00(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자는 흐름도 이런 상황인식하에 있다. 이제 다시 행동하자.

-사람을 향하는 사회정책

올 한해는 사회적 약자를 불모로 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사라지길 바란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에 있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현정이 존중 받는 그런 한해를 기대해 본다. 그 중심에 사회복지종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당신을 응원한다!



세밀, 갑·을관계에 대한 단상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침 출근 길, 음식쓰레기를 버리려고 보니 쓰레기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아파트를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께서 음식쓰레기 통을 닦아주셔서 올라온 수증기였다. 늘 쓰레기통이 깨끗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깔끔한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닦아 주신 덕분인 것을 오늘 알았다. 넌지시 추운데 이것도 닦으세요? 했더니, 그럼요. 매일 닦는데, 겨울은 뜨신 물이 안 나와서 더 어려워요. 아침 일찍 전기밥솥을 열어서 닦는 거예요 라며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그러시구나. 그래도 덕분에 저는 매일 깨끗한 쓰레기통 봐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하고 나왔다. 고맙워요 아주머니의 답변이 뒤에서 들려오기에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도 말을 참 잘했다 싶어서.

옛날 어느 고깃집에서 두 손님이 동시에 주문을 하게 되었다. 을 손님은 어이,이백정 고기 한 근만 주게 하고, 뒤에는 다들 손님은 여보게 박사방,고기 한 근만 주시게 하며 주문을 하자, 고깃집 주인은 각기 다른 한 근을 포장해 주었다. 뒷 손님의 고기 양이 많은 것을 본 앞 손님이 왜 저 사람은 고기를 더 많이 주는 거? 물으니 손님 것은 백정이 준 거고, 저 손님거는 박사방이 준거라 그렇소 라고 답했다. 한참 지체로운 박사장님이다.

얼마전 우유회사의 갑질을 시작으로 최근 땅콩회화 사건, 백화점 주차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린 사연 등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늘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사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일에 비해 갑질이 좀 덜한 편에 속하니 다행이라며 자위한다. 사실, 우리 일은 갑과 을을 나누기가 애매하기도 하다.

우리가 을이면,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갑인가? 가만 보면, 그들도 을이다. 그럼 누가 진정한 갑일까? 이런 사슬을 거쳐 올라가면 정말 진정한 갑은 국민이 아닐는지. 국민이 갑이면 나도 갑인데, 그런데 나의 현실은 슈퍼 을. 이 옅히고 설친 그림판 속에서 결국 사회 전체가 갑이자, 을이 되는가? 갑이 변해야 한다면 결국, 사회가 변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변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가장 작은 구성원으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기분 좋았던 기억을 거슬러 보자.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을 들으면 더 좋아진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 그럼, 오늘 아침 내가 건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줬을 것이고,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다른 날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을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 난 더 깨끗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선순환인가 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자. 그 말은 다시 내게 좋은 말로, 칭찬으로 들려오리라 확신한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한 진행자가 갑질에 대해 다루면서 말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전국민 운동 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을 미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사회의 을들은 아직 새해가 밝지 않았다. 을력설 전이라 갑 오년이면 주시게 하며 주문을 하자, 고깃집 주인은 각기 다른 한 근을 포장해 주었다. 뒷 손님의 고기 양이 많은 것을 본 앞 손님이 왜 저 사람은 고기를 더 많이 주는 거? 물으니 손님 것은 백정이 준 거고, 저 손님거는 박사방이 준거라 그렇소 라고 답했다. 한참 지체로운 박사장님이다.

연말연시, 결산과 예산을 결정하고 인사이드가 있는 이 시기의 사회복지계에도 을의 설움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눈에 보이는 폭력의 피해를 입어야만 상처를 입는 건 아니다. 우연히 던진 돌의 파장은 개구리에게 해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에게 비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나저나, 나부터 반성해야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이 나눠 있으니 아첨하지 많은 딸아이의 눈짓에 버럭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래도 내일 부터는 우선, 심호흡을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해야겠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북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디자인체험관', '휠체어체험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체험관

욕실, 거실, 주방 등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가 '같이' 함께하는 '가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용권을 찾아주는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지역단신

추운겨울 나눔으로 장애인에 온기 전해요

KDB산업은행 청주지점, 보람복지원에 390만원 전달

KDB산업은행 청주지점(본부장 성낙법)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12월 9일(화)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 보람복지원(원장 이수행)을 방문하여 후원금 390만원을 전달하고 거주장애인들이 격려하였다.

앞으로도 KDB산업은행 청주지점은 보람복지원과의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보고대회 참석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민용순)는 지난 12월 22일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지난 5개월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사업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으로 전국 5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실시해왔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총 102건의 동료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장정순 동료상담가가 느끼소감과 제안점을 발표했다.

이번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상담소 보고대회를 통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경험공유와 지지를 통한 동료상담의 효과성은 물론 동료상담가지역활동가로서 장애인부모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평가 과산군장애인복지관 최우수 기관

과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한 2014년 활동지원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총 170개소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과산군장애인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분야는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37점), 서비스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48점), 기관의 운영 개선(9점), 종합의견(6점) 등 크게 4가지 대분류, 51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과산군장애인복지관은 97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국 평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효선 관장은 이번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운영 및 서비스 질 제고하여 수급자인 당사자들이 많은 혜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산군장애인복지관은 29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13년 7월 개관하였으며, 장애인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청주시

장애인가정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멘토링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요청인원 : 40명
활동기간 : 02.09 ~ 12.31
전화번호 : 043-252-9720

나눔교육서포터즈 11기 모집

관리센터 : 아름다운가게
요청인원 : 제한없음
활동기간 : 01.06 ~ 06.30
전화번호 : 043-221-0011

도배 봉사

관리센터 : 청주해오름마을
요청인원 : 10명
활동기간 : 01.01 ~ 12.31
전화번호 : 043-285-4438

저소득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 5명
활동기간 : 01.05 ~ 12.31
전화번호 : 043-266-4761

영동군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영동군립노년전문병원
요청인원 : 1명
활동기간 : 01.01 ~ 11.30
전화번호 : 043-744-9633

중평군

아동학습지도

관리센터 :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 3명
활동기간 : 01.01 ~ 12.31
전화번호 : 010-9419-8056

밀반찬서비스 배달

관리센터 :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 5명
활동기간 : 01.01 ~ 12.31
전화번호 : 043-743-15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공유 복지플랫폼

보건복지부 2015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

- 1) 수행기간 : 2월~12월
2) 내용 : 어린이날 및 주간행사, 아동총회, 아동권리 포럼 등
3) 접수 : 01.16(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보건복지부 2015~2017년도 정신질환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선정 공모

- 1) 사업명 : 정신질환 인식개선(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12.31
3) 예산 : 150,000천원

보건복지부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모

- 1) 대상 : 모범어린이, 아동유공자
2) 접수 : 01.26(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전복지재단 2015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1) 접수 : 01.19(월)까지
2) 인원 : 7개 동아리(1개팀 최소 10명이상)
3) 자격 : 대전시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 소속 사회복지실무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5 한국임팩트와 함께하는 건강지킴이사업 공모

- 1) 목적 :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2) 접수 : 01.20(화)까지
3) 자격 : 회원기관, 2011~2014 기 존 사업기관 등

여성가족부 2015년도 청소년 근로보호 민간보조사업

- 1) 사업기간 : 2015년1월~12월말
2) 예산 : 145,000천원
3) 자격 :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업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접수 : 01.16(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MBC 무한도전 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안내

- 1) 대상 : 저소득 소년 소녀 조손 위탁 한부모 가정 학생
2) 내용 : 초/중학생 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3) 인원 : 총 160명
4) 접수 : 1월23일(금)까지 우편, 온라인 모두 접수

이달의 법률상식



강희석 변호사

인신보호제도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에 갇히게 된 사람(피수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구제청구자)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수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수용상태를 해제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수용자를 심문하고 수용이 위법하거나 수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 할 수 있고, ① 구제청구자와 수용자 피수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② 청구의 요지 및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③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또는 피수용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수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

여야 하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 시켜야 한다.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신보호제도는, 피수용자나 그 주변인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워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담원 안내, 관할법원 담당직원 연결 등을 통해 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복 / 지 / 만 / 평

하얀겨울

이창신 www.bokmani.com



세상이 온통 하얀 겨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털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는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강희석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화 : 043)238-0843 / 이메일 : lovingusm@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